

주일 예배 순서

- 성령강림 후 제5주 -

조용한 기도(Silent Prayer)	시편 100:1-5	다함께
찬 송(Opening Hymn)	49장	다함께
교독문(Responsive Reading)	21번	다함께
공동기도(Prayer)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공평과 정의로 만물을 다스리시며 만유 가운데 사랑으로 충만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셔서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저희 또한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저희 눈앞에 밝히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사람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지 않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가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한마당 교회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서로 존경하고 겸손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며, 주님이 아니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분초마다 깨닫게 하시어 항상 예수님께 붙어있게 하옵소서. 오늘로 말씀으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오며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Apostles Creed)		다함께
성경봉독(Scripture)	사도행전 2:37-41	인도자
말씀증언(Sermon)		이송원 목사

“회개와 믿음”

봉 헌(offering)	4장	다함께
환영과 소식(Welcome/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Hymn)	336장	다함께
축도(Benediction)		이송원 목사

교회 소식

1.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친교 및 소그룹 모임을 잠정적으로 중단합니다. 4차 추가접종 및 마스크 착용 등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4. 담임목사님은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시온 한인교회에서 말씀 전하십니다.

<기도제목>

- 러시아의 침공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종전과 평화를 위해
- 전쟁으로 인해 식량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위기를 맞게 될 아프리카 국가들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하시도록
- 미국에 회개와 부흥을 통한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져 사회 전 분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 선교사님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가운데, 모든 사역의 초점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지도록.
-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 아프신 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 박현숙 성도님(좌골신경통 및 빈맥증) / 서희숙권사님(항암치료중)

교회창립 1981년 10월 24일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담임목사(Pastor) 이송원 목사(Rev. Songwon Lee)
반 주 자(Pianist) 기길숙 성도

Han Madang United Methodist Church

7800 West Pleasant Valley Road, Parma, OH 44130

☎ 교회: (440)845-1728

E-mail : hanmadang@sbcglobal.net

웹사이트 <http://www.hanmadang.org>

<말씀묵상> 사도행전 2:37-42

37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39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40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41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1.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었을 때, 어떤 대답을 하였습니까?(37, 39절) 나는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합니까?
2. 사도들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권하였을 때 어떤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됩니까?(40,41절) 내가 말씀을 받았을 때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 신앙의 근본적인 요소 중에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를 잊으면 우리는 다시 교만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주는 영적인 동아줄입니다. 만일 회개의 영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마음이 강퍅해져 겉으로는 그럴듯한 종교인 행세는 할지언정 겸손과 사랑으로 무장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지극히 적은 죄에도 민감해져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리어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태도를 기뻐하시어 더욱 그를 겸손케 하시고 거룩하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또한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만들 수 없습니다. 믿음은 회개를 통해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예비된 선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과 복음의 능력이 자신을 위해 준비된 것임을 보는 눈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의심 없이 그것들을 받아들여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맛보고 경험하는 경험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있어서 회개는 자신 안에 있는 깨닫지 못한 더럽고 부정한 것들을 뽑아내는 정화작용을 하고, 더 나아가 오직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는 견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회개의 영을 잃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나는 언제나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